

‘축구의 신’ 마라도나 별세... 곳곳에 추모의 물결



2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 경기장 밖에서 한 축구 팬이 디에고 마라도나의 포스터 앞에 촛불을 밝히며 그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같은 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한 소년이 디에고 마라도나의 벽화를 어루만지고 있다.



‘밀어주자 뉴스타’ 스포츠 유망주 알리기

대한체육회, 20명 선정
전북체고 황현서 등 포함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는 27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들을 위한 ‘밀어주자 뉴스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육상, 수영, 탁구, 스키, 테니스 등 16개 종목 20명의 스포츠 유망주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시작한 ‘뉴스타운동본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 선정된 스포츠 유망주는 ▲양예빈(육상·용남고) ▲신유빈(탁구·대한항공공) ▲서휘민(소프트트랙·평촌고) ▲안세영(배드민턴·광주체고) 등 이미 국가대표급 기량을 보이는 선수 외에도 최근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황선우(경영·서울체고) ▲윤서영(사격·환일고) ▲김다은(스키·방배중) ▲김동훈(근대5중·서울체고) ▲김선아(하키·한체대) ▲김소연(컬링·남춘천여중) ▲김진영(핸드볼·경희대) ▲류성현(체조·울산스포츠회고) ▲이건섭(레슬링·함평학다리고) ▲이윤서(체조·서울체고) ▲이재용(육상·영동고) ▲이채운(스노보드·담중) ▲조선웅(테니스·군위고) ▲진호준(태권도·안중고) ▲허운서(아티스틱스위밍·신사중) ▲황현서(자전거·전북체고)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훈련 환경 가운데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스포츠 유망주들이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스포츠 유망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스포츠 유망주와 해당 종목을 알리고, 나아가 전 국민의 관심과 추천으로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유도하는 등 종목별 스포츠 마케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멕시코월드컵 우승 이끈 아르헨 축구 영웅

초점 - 마라도나, 그는 누구인가?

개인기·돌파 능력 '탁월'
1980년대 세계 축구 아이콘
남아공월드컵서 감독으로
한국 국가대표팀과 대결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26일(한국시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0세.

마라도나는 한때 축구의 대명사로 불렸을 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선수다. 1986년 멕시코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며 대회 최우수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톱톡 뛰는 기행으로 화제를 끌고 다니기도 했다.

마라도나는 1960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3남4녀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소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맞았다. 만 16세였던 1976년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라는 팀에서 프로 데뷔전을 갖는다.

축구 천재의 서막이었다. 마라도나는 이 팀

1982년 6월 마라도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페인 월드컵 개막전 벨기에와의 경기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에서 1980년까지 5년 동안 100골 이상을 터뜨리며 잠재력을 뽐냈고, 1981년 아르헨티나 명문 클럽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했다.

이어 1982년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고, 나폴리(이탈리아), 세비아(스페인) 등 명문 구단에서 활약했다.

특히 팬들에게는 나폴리 시절의 마라도나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두 차례 우승을 이끌었고, 유럽축구연맹(UEFA)컵(현 유로파리그)과 코파 이탈리아(FA컵)를 들어올렸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나폴리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 시기는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때다. 최정성기라는 별가를 받는다.

165cm로 작은 신장이지만 탄탄한 몸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대단했고, 현란한 개인기와 돌파 능력을 자랑했다. 클럽 소속으로 총 588경기에 출전해 312골을 기록했다.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면서 국민적 영웅이 됐다. 1980년대 세계 축구의 아이콘이었다. 1977년부터 1994년까지 A매치 91경기에 출전해 34골을 터뜨렸다.

멕시코월드컵 8강전 잉글랜드와의 대결에서 나온 '신의 손 사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 경기에서 마라도나의 손에 맞고 골이 들어갔으나 주심은 정상적인 헤더로 인정해 논란이 됐다. 당시 마라도나는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만든 골”이라고 둘러서 말했다.

기행이 많아 그라운드의 악동으로도 불렸다.

1994년 미국월드컵 도중 도핑 테스트에 걸

려 하차했고, 1997년 은퇴 이후에는 마약,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다.

한국과는 월드컵에서 두 차례 만났다. 우승을 차지한 멕시코월드컵에선 선수로,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선 감독으로 나서 태극전사들과 싸웠다.

멕시코월드컵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났다. 마라도나는 도움 3개로 아르헨티나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허정무(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마라도나의 전담 마크맨으로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상적인 수비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다소 거친 플레이가 이어졌지만 마라도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아르헨티나 언론에서는 허정무의 플레이를 ‘태권 축구’라고 평했다.

공교롭게 24년 뒤인 남아공월드컵에선 마라도나와 허정무가 감독으로 출전해 지라대결을 펼쳤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곤살로 이과인(인터 마이애미)을 앞세운 아르헨티나가 4-1 완승을 거뒀다.

마라도나의 후계자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33·바르셀로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축구계와 모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매우 슬픈 날이다. 그러나 마라도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고 애도를 표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